#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몽땅 믿고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 23면에서 계속

지마는 생명체란 고교한 겁니다.

이 기복으로 믿다 보면 전부 헛다리 짚는 셈이에요. 이쪽 나무가 이쪽 나무한테 에너지를 좀 보내 달라고 기도를 해 보세요. 이쪽 나무가 이쪽 나무로 에너지를 보내 줄 수 있나요? 그 나무는 바로 제 뿌리를 믿어야 하겠죠. 그러니깐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푸르르게 살 수 있고 꽃도 필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깨달으면 이 허공 가운데 연꽃이 핀다는 얘기가 있죠.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전에는 대법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돈 버리고 왜 이 법회를 하느냐고 이런 스님네들도 있고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죠. 나를 내가 건지는 데 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던 내 몸뚱이도 다 버리고, 그 모습을 다 버리고 가는데 말입니다. 무엇을 잡고 가려고 돈을 아낍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해야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컵에 물 한 잔을 남에게 줬다면 반드시 이건 내가 했기 때문에 한 것대로 돌아옵니다. 바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에. 가게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돈 안 주고 물건 그냥 주는 거 못 보셨죠? 또는 돈을 안 주면 물건도 안 내놓죠. 그런 거와 같이 주는 사이도 없고 받는 사이도 없이 우리는 그 생각을, 한 생각을 항상, 즉 말하자면 내가 누구에게 보시했다 이런다면 보시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 보시한 대가는 벌써 나한테 오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 거저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지 내가 없다면 무슨 상대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나로부터 모든 게, 세상도 벌어지고 가정도 있는 거고 자식도 있는 거고, 모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 모습, 내 나무는 내 뿌릴 믿어야만이 아주 건강해지는 겁니다. 왜 건강해지느냐. 거기에 관하니까. 믿으니까.

어디가 아파도 내 마음이 더 잘 알죠? 아프다 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거기에 입력이 돼서 벌써 거기서 작용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고교하고 이렇게 선명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모르고 항상 뭘 좀 달라고, 뭘 좀 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옳겠습니까? 자기는 쑥 빼놓고, 자기 운전수는 쑥 빼놓고 말입니다.

**자식에게 들러붙은 마음이**

**질문** 마음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안정되고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주인공에게 관하긴 하지만 자식에게 들러붙은 마음이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것도 내 자식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인가요.

**답변** 이 마음이라는 게, 빛은 가다가도 어떠한 연고가 생기지만 마음은 은산철벽도 뚫을 수 있고 어디로든, 남의 마음으로 같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자식이나 남편이 정히 안됐을 때 내 마음이 그쪽으로 투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말입니다.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관할 때에 바로 내가 남편한테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한테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아주 특별한 인연이 되고 그러는데, 어째 나만은 안 그렇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이 나쁜 사람이 생기는 것도 마음의 조작입니다. 돈이 있어도 도둑질하고 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죽일 것도 아닌데 죽이거든요, 또. 이게 마음의 조작이란 말입니다. 고가 있느니 집착이 있느니, 그게 고와 집착만 없으면 멸이 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이 집착, 집착이 없으면 욕심이 없고 그렇다면 고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게, 모두가 우리가 만들어서 '고'라고 하는 거지.

보세요, 강물 흐르듯이 흘러갈 거를, 기껏 그냥 흘러갈 거를 붙잡는단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되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럭하고 집착하고 하니까 강물이 흘러가다가도 그냥, 그냥 가서는 걸려 버려요.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왜 안 되겠어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강물 흘러가듯 하는 건데.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는데. 이것 보면 저것 봐야 하고 저것 보면 이것 봐야 하고, 이것 들었으면 저것 들어야 하고, 저 사람 만났으면 이 사람 만나야 하고, 이것 했으면 저것 해야 하고 이게, 매사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고정됨이 없이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듯이 그렇게 그냥, 말을 해도 벌써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대로 과거로 흘러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붙잡아요, 자꾸. 여러분이 살면서 붙잡는 게 고(苦) 인(因)이에요. 잘되는 건 붙잡지 않는데 잘못되면 더더욱 붙잡고 늘어져요. 아, 좀 느긋하게, 어떠한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느긋하게 좀…. 나무가 자기 뿌리 없이 사는 거 보셨습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사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뿌리에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싹으로 올려보내야 싹이 푸르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냥 자기 뿌리는 얻다가 팽개치고 이름이나 형상을 보고 찾아다니며 기도를 하려고 하니 그게 통신이 되나요? 이 나무가 저 나무한테 에너지를 달라고 그러면 주게 될까요? 자기 뿌리만이 자기 나무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게 자기네들이 마구 붙들고 그래 가지고선 그릇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건 다 놓고 가는 건데 왜 마음을 그렇게 놓지 못합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도 그걸 놓게 되면 그냥 저절로 풀려서 돌아갈 걸 외려 붙들어서 풀려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회사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집도 없고 아주 어려워서 죽겠으니깐 나더러 하루는 "아버지가 이렇게 돌보지를 않고 이럭하니 우리가 애들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다 버리고 길바닥에서도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내가 우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나 보여요. 세상에, 저렇게 마음을 다 비우고, 저렇게 아무 데서나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절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그건 드물죠. 그러자 그 사람은 부모가 찾아서 다시 그 회사에 아들을 내놓고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깐 마음과 마음의 인연도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참 묘하죠. 마음은 빛깔도 없고 잠글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 음파가 전도되는 것만 아니라 마음에, 즉 말하자면 사람의 에너지도 전도가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면 외국에서 말입니다, "병원에서도 어디서 하혈이 되는 걸 모르고 인제는 생명이 위태합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그게 말로 할 일입니까, 그게? 이건 내가 잘났다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것은 실험해서 살아나가는 데에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섭니다. "알았어." 이럴 수밖엔 없죠. 하지만 "알았어." 할 때 그 에너지는 전도가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자기가 몇만 개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지금 땅덩어리에서 에너지를 다 쓰게 되면 어디서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차원이 높아져야 차원이 높은 허공의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차원이 높아지고 그러는 반면에 높은 데로 걱정 없이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긴다 이 소립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하려면**

**질문** 저는 아만심이 강해서 그런지 상대와 마찰이 생기면 말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제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왜 이런 게 있지요? 그 속으로다가 '아이구, 저놈이 저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하다가도 그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정이 있어요. 꼭 사정이 있단 얘깁니다. 이것을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식하고나 부부지간이나 부모지간이나도 말을 해서 놓으면은 이것이 풀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말은 없이 속으로 말은 안 하고 이것을 그냥 꾸욱 웅크려 물고선 그거를 아예 풀질 못하고 있으면 영 그게 착이 되고 업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런 게 다 병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웃으면서 말을 이렇게 해 버리는, 그 함이 없이 하는 말, 남이 듣기 좋은 말로 웃으면서 그냥 하면은 그쪽에서도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던 거야." 하고 말이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해가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기 생각만 했지 남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한 번쯤 돼 보고 다시 한번 안으로 굴려서 좋은 말로 옮기도록 노력해 보세요.

마음으로 안으로 굴리지 않는다면 그 길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굴림에 의해서 앞날이 펴지고 앞날이 밝아지지, 거죽으로만 '얘야, 너는 어떡하고 어떡하고 어떡하고' 말이 많고, 이거는 똑바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오히려 비뚜로 나가는 수가 100% 될 수가 있죠. 남편도 자꾸자꾸 이것을 이렇게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세상에 이렇게 해 가지고 삽니까." 하고 그렇게 해 봤던들 오히려 그런 걸 번연히 알면서도 이것은 주장을 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파괴가 됩니다, 알면서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 햇빛을 따뜻하게 아주 쨍쨍 쪼여 보십시오. 그러면 입었던 옷도 훨훨 벗어 버립니다, 원리가. 그러나 아주 가장 그냥 강하게 추위가 오고 모진 바람이 몰아닥칠 때는 반드시 옷을 덥게 입고 더 옹그리고 더 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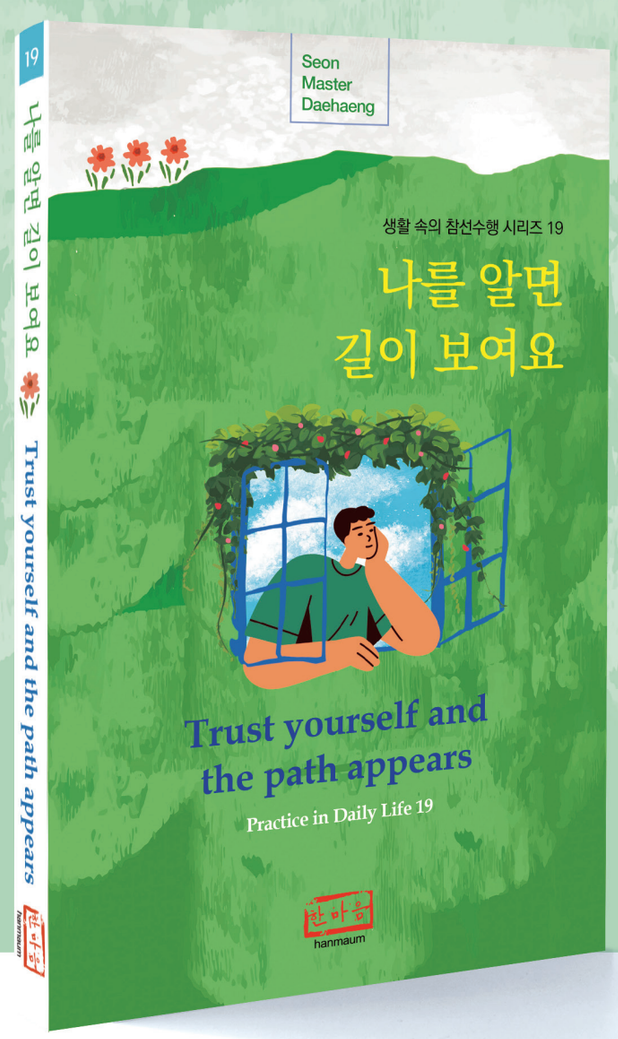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식이 돼 봐 주는, 내가 자식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서 한번 안으로 굴려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또 남편이 어떡할 때 내가 한번 바꿔서 남편이 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의 굴림이 여러분의 삶의 의지와 보람 있는 삶을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 당장 죽게 된다 할지라도 탁 넘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 그래야 모든 걸 다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 이게 시급한 겁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